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4주일
제31권 19호(가해) 2011.4.3

[묵상]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태생 소경을 보셨다.
진흙을 침으로 개어 눈에 바른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셨다.
가서 씻은 그는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게 문제다.
율법은 보이고 사랑의 행위는 보지 못하는 이
사랑이 빠진 율법준수로 눈이 멀게 된다.
눈뜬 이가 자기들이 이전에 알던
구결하는 바로 그 사람임을 보지 못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느님에게서 온 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눈을 가졌다고 모두가 멀쩡히 보는 것은 아니다.
눈먼 줄 모르고 잘 볼 줄 안다고 하는 이에게는
사랑의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다.

빛을 통해 사물을 보는 것이 세속인이란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통해 세상을 보는 이가 신앙인이다.
때론 세상의 빛나는 것들이 나를 눈멀게 한다.
예수님을 가리는 세속의 빛을 치우자.
눈을 뜨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제주) M.E. Sharing(3제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제토요일) 성령기도회 매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빈첸시오회 ● 울뜨래아 ●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권순봉 요안나, 이재숙,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이만복 로사, 하원도,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생)이덕철 루카 & 이순자 비비안나 가정, 박지혜 수산나, 김민기 요셉, 이정훈 루카, 정영섭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민소예 모니카, 권순봉 요안나, 박송희, 이현호 요한, 엄은섭 도로테오,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여용녀 아숨파 & 정한 스테파노, 김종환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생)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가정,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리안 아그네스, 조영우 스테파노 & 레지나 가정, 김완태 다미아노, 정은경 그레이스, 이상훈 프란치스코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기 상권(1 Samuel) 16,17-13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5,8-14

복 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 음 요한(John) 9,1-41

영성체송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뒤 이르셨네.
가서 씻고 보아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4	154	150
봉헌	378	272	272
성체	내 이름 아시죠	292	292
파견	158	158	153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생명의 복음을 경축함

이것은 생명을 그 깊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며, 그 절대적인 고마움과 아름다움을 파악하고, 그것이 자유와 책임으로의 초대임을 파악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다. 그것은 생명을 소유하는 대상인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모든 사물들 안에서 창조주의 반영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분의 살아 있는 모상을(창세 1,27; 시편 8,6 참조)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병들고, 고통받고, 쫓겨나거나 죽음의 문턱에 서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실망하여 포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도전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바로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만남과 대화와 연대에 대한 부르심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할 때이며, 바오로 6세께서 당신의 첫 번째 성탄 담화에서 우리에게 초대하셨듯이, 깊은 종교적 경외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 구속된 새 백성은 이 관상적인 시각에 휩싸여, 거저 주신 생명의 선물에 대해서 기쁨의 노래와 찬미와 감사로써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으며, 또 우리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하느님과의 끝없는 친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

84). 생명의 복음을 경축하는 것은 곧 생명의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모든 생명이 비롯되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축해야 한다. 그곳으로부터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생명에 참여하는 모든 존재들이 생명을 받는다. 다른 모든 생명 위에 존재하는 이 '신성한 생명'은 생명을 주고 보존한다. 모든 생명과 모든 움직이는 것은, 모든 생명과 모든 생명의 원리를 초월하는 이 생명에서 비롯된다. 영혼들이 지닌 불멸성은 이 '신성한 생명'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이 생명 때문에 살아가며, 그곳에서 가장 미미하고 가물거리는 생명의 빛을 받는다. 그 생명은 정신과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인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우리가 비록 이 생명을 등질지라도, 이 '생명'은 그 흘러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회개시키고 돌아오라고 부른다. 그뿐 아니라 이 생명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멸성으로 데려다 줄 것을 약속한다. 이 생명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것은 생명의 원리이며, 생명의 근원이고 유일한 마르지 않는 샘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것을 관조하고 찬미해야 한다. 그것은 생명이 넘쳐흐르는 생명이다." (◆계속)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느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의 빛을 보고 자신과 부딪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등불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만 “탁!”하고 이 맹인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화를 버럭 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눈도 없소? 나는 맹인이라 앞을 못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하시오?”

그러자 맹인과 부딪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손으로 맹인이 들고 있는 등불을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이 먼 병자를 고쳐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기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지켜야 할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는 눈먼 사람이 눈을 뗀다는 사실마저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예수님과 눈멀었던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마치 위의 이야기처럼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는 소경이 자신과 부딪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볼 수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태생 소경이 분명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태생 소경은 비록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빛이요 구원 그 자체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심지어는 회당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여러 소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만 소경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돈만 보이고, 도박에 미친 사람은 화투장만 보일 것입니다. 또 여자에 미친 사람은 여자만 보이고, 권력에 미친 사람은 권력만 보일 것입니다.

그렇듯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소경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요한 9,41).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레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데레사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 주 전례 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오상 바오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시기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7:30 저녁미사 후

- 사순 제4주간 금요일(4월8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간 금요일(4월15일) : P.V. 구역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를 잘 준비합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21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사순 판공성사 : 4월6일(수)

- 미사 및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도 같은 일정)
- 공동보속 : ①로마서 통독 ②선행1회 ③주모경 1회
이중 두가지 이상 선택.

* 사순에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올려드립니다.

◆ 4월 성시간

- 7일(목) 7시30분 저녁미사 후

◆故이태석 신부의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 영화 상영

- 아프리카 오지 수단 톤즈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한국의 슈바이처’故이태석 요한 신부님이 남긴 사랑의 감동 드라마.
- 일시 : 10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주관 : 종교교육부 ☎(310)694-4585 최재은 분과장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4월17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반장, 계시관 안내 참조

* 문의 : ☎(310)612-8840 김씨니 클라라 소공동체부장

◆ 주일학교의 일본대지진 피해자돕기 쿠키판매 \$1,068.46

-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김낙기 바오로, 황선흥 그레고리, 신 다니엘)이 지난주일 주관한 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쿠키판매에서 \$1,068.46을 모금했습니다. 동참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이 돈은 CRS(Catholic Relief Service)에 보내서 일본에 전달됩니다.

◆ 부활맞이 가족사랑 3인 농구대회

- 일시 : 4월24일 부활대축일 오후 2시, 성당 농구장
- 게임방식 : 토너먼트, Half Court *게임시간 : 12분
- 팀구성 : 24팀
- 준비물 : 팀별 농구공 *참가비 : 팀 \$20
- 선수구성 : 가족단위 3명이 한팀(본당교우 only, 선수구성원 1명의 나이가 20세 이상 차이나야함)
- 상금 : 1등 \$300, 2등 \$200, 3등 \$100
- 신청 : 4월17일(주일)까지, 성당현관 선수구성 표시판에 기입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체육분과장 ☎(310)594-9472

◆ 본당설립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준비

- 일시 : 9월18일(주일)~24일(토)
- 전시작품 :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서예, 사진, 공예, 퀼트, 한국화, 민화, 꽃꽂이 등 백삼위교우들의 취미활동 작품
- 가칭 준비위원 : 김윤진 카타리나, 김선제 바오로, 한장환 안토니오, 이명순 크리스티나, 이명렬 라파엘, 김선영 글라라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3일(주일) :故 권순봉 요안나 님의 유족(권태만 실베스텔&순에 테레사)께서 모친의 장례미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신자들에게 친교점심을 제공합니다.
- 4월10일(주일) : 하버/카슨 구역(북어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금영도	김광자	김병조	김영길	김일선
	김준호	박근식	박기돈	박정희	박종열	서성용
	송영미	오세원	오수인	유영균	유희연	윤화경
	이경용	이근태	이병우	이석채	이석진	이용식
	이인석	장영진	장춘수	정혜영	정훈모	최미열
	최진수	한금순	한장환	한창주	한혁수	한혜숙
	현석주	박제이콧				
	합계 : \$3,600					
미사헌금 : \$3,051.50						
성전헌금	강인모	금영도	김광자	김병조	김영길	김일선
	김준호	박기돈	박정희	박종열	서성용	오세원
	오수인	유영균	유희연	윤화경	이경용	이근태
	이병우	이석채	이석진	이용식	이인석	장춘수
	정혜영	정훈모	최미열	최진수	한금순	한장환
	한창주	한혁수	한혜숙	박제이콧		
	합계 : \$2,350					
주보광고 후원 : \$1,75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 주일학교/한국학교 봄방학으로 오늘주일 수업 없습니다.
- ◆ 주일학교 사순피정에 만나회에서 도네이션해주셨습니다.
지난 1일(금)~3일(주일)까지 테메큘라 꽃동네에서 사순피정 중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만나회에서 금일봉을 도네이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고등부 견진성사
 - 대상 : 주일학교 10학년 이상
 - 일정 : 5월 13일(오후 7시30분-9시): 리허설
5월19일 (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견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Lomita)
 - * 신청자는 위 3일 일정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남가주 소식

- ◆ 장애인 후원을 위한 작은 예수회 '1일 점심·차' 행사
 - 일시 : 9일(토) 낮 12시~오후 2시
 - 장소 : 작은 예수회 LA 장애시설(올림픽+ 후버, 1137 Arapahoe St. LA, 90006)
 - 메뉴 : 배추국, 불고기백반 정식
 - 문의 : 운영이사 노장오 요셉 ☎(213)387-3301
- ◆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
 - 일시 : 4월9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 영화 : 패치 아담스(Patch Adams), 로빈 윌리엄스 주연)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310)324-8159
 - 지도 : 황광우 요셉 신부(몬테푸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피정비 : \$20
-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영어피정
 - 일시 : 4월21일(목)~24일(주일)
 - 주제 : Come and See!(와서 보라!)
 - 대상 : 선교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20~31세의 남성
 - 장소 : 텍사스주 엘파소의 성골롬반 선교센터
 - 문의 : 성소담당 최용훈 요셉 신부 ☎(323)388-7737
- ◆ 제3회 남가주 청년연합 찬양수련회
 - 일시 : 4월29일(금)~5월1일(주일)
 - 주제 : "주님 저의 소리를 들으소서!"
 - 장소 : PCCCI(빅배어 레이크)
 - 대상 : 남가주 한인가톨릭청년
 - 회비 : \$110 * 문의 : ☎(714)200-9862 김정옥
 - 주관 : 남가주 한인가톨릭 청년찬양팀/성가대연합
- ◆ 가톨릭신문사 주최 제2회 정통 크루즈 성지 순례
 - 일시 : 4월27일부터 15박16일
 - 내용 :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4개국
 - 경비 : \$4,300(라지내측), \$5,100(발코니)
 - 문의 : 삼호관광 ☎(213)427-5500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 4/8(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유선식 필립보 326-2184 4/9(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이병찬 안토니오 989-0366 4/16(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4/24(일) 낮 12시30분 텔손 팍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4/11(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현석주 아오스딩 433-9075 4/15(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안혜진 세레나 972-9193 4/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송 마이클 850-2822 3/12(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박정희 마리아 800-3709 3/11(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주대중 다니엘 818-640-3656 4/16(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박종선 리비나 748-7323 4/9(토)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진영 프란치스코 544-4807 3/12(토) 오후 6시30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허정자 리타 377-3820 3/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3/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따뜻한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난처해진 신랑을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 수많은 병자를 고쳐 주시



고 죽은 이를 살려내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장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장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장면? 아니면, 정반대로 바리새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시는 말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는 장면?

그 모든 장면과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바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요한 11,35).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우셨습니다.(루카 19,41). 예수님의 눈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이 들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까움, 슬픔, 안쓰러움, 가엾음, 측은함 등을 모두 포함하는 슬픈 사랑...

예수님의 눈물은 마치 가득 고인 사랑의 샘물이 넘쳐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일 선물이나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때에만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면 아직 철이 덜 든 것입니다.(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철이 덜 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없던 자녀들이 자기 때문에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때가 철이 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은총과 복을 받고 좋아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아직 철이 덜 든,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때

문에 눈물을 흘리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스스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성체조배를

하다가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가를 부르다가, 미사 참례를 하다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자기 설움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주제로 강론글을 쓰거나 묵상글을 쓸 때마다, 또는 강론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마다 느끼는 일인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도 늘 말장난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 강론을 들을 때에도 말장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느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사랑'이라는 것의 실체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부모들, 특히 엄마들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특히 무슨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녀를 바라볼 때 느끼는 애절한 감정,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이 진짜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직접 낳고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되어봐라, 그러면 지금의 내 심정을 알 것이다, 라는 말... 그런데 정말로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되어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의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해야 회개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됩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 송영진 모이세 신부 / 전주교구